

ONE-PERSON-LIBRARY의 의미론적 해석*

An Analytical Approach to One-Person-Library

정 준 민 (Jun-Min Chung)**

목 차

- | | |
|------------------------------|-------------------------------|
| 1. 발 제 | 3.3 도서관의 본질과 사서의 행위 |
| 2. Virtual의 이해 | 4.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재해석 |
| 2.1 Virtual의 의미론적 해석 | 4.1 one-person-library의 개념 |
| 2.2 Virtual과 Actual의 이분법적 비교 | 4.2 one-person-library 개념의 확장 |
| 3. 도서관의 이해와 사서의 의미 | 4.3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재해석 |
| 3.1 도서관의 정의 | 5. 결 언 |
| 3.2 사서 또는 사서 직의 정의 |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다룬 연구이다. “사서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도서관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일까?”로부터 연구는 진행된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 역시, 현재의 현상학적 해석이 아닌 본질로 이해하였으며 도서관의 내면적 가치인 정보서비스를 끄집어내게 된 것이다.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도서관을 잠재태로(virtually) 표현하는 과정에 개인의 역할과 기능으로 도서관의 본질을 설명함으로써 나, 개인도 도서관이 될 수 있으며 내가 도서관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정보서비스가 되는 것이다.

ABSTRACT

The cognitive approaches on library and librarianship are being questioned. These are led from what the identity of the librarian is and from what the library is. This revealed that the perception of the library should not be acquired by interpreting its appearances but by interfering its nature. In conclusion, the information service is disclosed virtually as the essence of the library. On realizing the library virtually, even a person could be entitled as the library on the underlying assumption of information service (one-person-library).

키워드: 가상도서관, 사서의 정체성, 도서관의 본질, 정보서비스

One-Person-Library, Virtual Library, Identity of the Librarian, Nature of Library, Information Service

* 본 연구는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K1AB327-327-2011-1-H00012).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wizard@chonnam.ac.kr)

논문접수일자: 2013년 7월 11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8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8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25-47,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025>]

1. 발 제

도서관은 무엇이며 사서는 어떤 존재일까? wikipedia(2013. 2. 26)에서 도서관(library)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도서관은 '모기관의 이용과 접근을 위한 조직화된 정보자원(an organized collec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made accessible to a defined community for reference or borrowing)'이라 되어있다. 비슷한 기관으로 병원과 법원을 살펴보면, 그 정의가 사뭇 다르다. 병원은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치료기관(health care institution providing patient treatment by specialized staff and equipment)'이며, 법원은 '제정된 법질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법률적 문제 또는 이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 시설(a tribunal, often a governmental institution, with the authority to adjudicate legal disputes between parties and carry ou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in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matters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law)'로 되어있다.

왜 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같은 공공시설인 병원과 법원이 다를까? 법원과 병원은 기능이 행해지는 공간(institution)¹⁾으로 정의한 반면 도서관은 기능의 대상(information resources)을 표현한 것일까? 진정 도서관은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그나마 지금의 wikipedia 해석은 공간이 아닌 대상으로 정의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본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특정한 행위가 요구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병원과 법원이 치

료(patient treatment)와 판결(administration of justice)이라는 기능이 요구되는 반면 도서관은 오로지 정보자원의 존재유무로 구별 짓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병원과 법원은 전문 인력(specialized staff [의료진], the authority[법조인])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어느 누구도 없다. 왜일까? 무슨 차이일까? 아니 무엇이 다른가?

도서관의 역사를 보면 도서관은 책의 더미와 목록이 존재하는 공간이라 되어 있다. 그러나 병원도 의료장비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목록이 있을 것이며 법원 또한 단순히 시설과 목록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병원이나 법원이 의료 행위와 판결행위가 존재하는 곳인 것처럼 어떤 행위가 요구되는 곳은 아닐까? 그러면 여기서 사서(librarian)는 누구인가? 역시 wikipedia를 보면 '정보자원을 다루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전문직(a person who works professionally in a library; librarian may deal with information in many formats)'으로 되어있다. 사서의 행위는 관리가 주 업무인 것 같다. 역사적으로도 수메리아인들은 회계내용을 기록한 점토판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것을 사서의 기원으로 보는 듯하다. 왜 도서관을 책의 더미라 이해하고 사서를 단순히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업무로 인식하는 것일까? 혹시 업무의 지적능력은 배제된 채, 보이는 기술과 매체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지? 본고는 사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도서관의 모습을 도서관과 사서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1) institution: (any structure or mechanism of social order and cooperation governing the behavior of a set of individuals within a given community)

2. Virtual의 이해

2.1 Virtual의 의미론적 해석

The virtual: Anything, 'that is so in essence or effect, although not formally or actually; admitting of being called by the name so far as the effect or result is concerned' (Oxford English Dictionary)

'미녀와 야수'라는 서양 동화가 있다. 줄거리를 보면, 미녀가 야수에게 납치된다. 그러나 야수는 마법에 걸린 왕자였으며 미녀를 구하러 오는 (나쁜)왕자는 실은 매우 사악한 친구였다. 그러나 야수는 그 왕자를 죽이고 마법에서 풀려나 왕자가 되고 결국 미녀와 결혼한다는 권선징악적 얘기다. 여기서 야수와 (나쁜)왕자를 보자. 동화의 처음 부분에 등장하는 야수와 왕자는 실물로 보이는 현상적 표현이었다. 이야기의 끝을 보면 (나쁜)왕자는 야수의 성질을 드러내고 본래의 왕자에게 죽임을 당한다. 여기에 묘사된 모습에서 왕자와 야수가 바뀔 수 있다. 현실적 표현으로 하자면 그들의 잠재된 마음씨를 표현한 것이리라. 우리가 'virtual'이라 함은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것이 갖는 잠재성을 말한다.

한 가지 예시 더

오래 전 모 방송국에서 방영된 연속극 중에 '대장금'이 있다. 사료에 오직 한 줄만 기술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아시아에서도 유명한 조선 사극 드라마이다. 극 중에 장금이 가 피력하는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머니란, "중국 황제께 식의가 생겨난 기원이 이 사

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본시 태어나기를 집안의 노비로 태어나 굶은일을 다하였으나 또한 집안 모든 사람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았을 때는 온천하가 태산이었으나 이 사람이 죽자 온천하가 물로 뒤덮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어머니가 바로 'virtual'이다.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어머니의 현실적 모습이 아닌 우리가 그리는 어머니의 본질적 모습이며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기를 기대하는, 또 그렇다고 믿는 어머니 상인 것이다. 현실에서도 역시 모든 어머니는 그렇게 되길 바라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virtual' 어머니는 현실적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경험인 것이다.

'virtual'은 철학적 이해를 넘어 새롭게 정의되기도 한다.

The other sense of "virtual" describes an optical phenomenon. According to Webster's dictionary, a virtual image is one formed of virtual foci; that is, of points "from which divergent rays of light seem to emanate but do not actually do so." This meaning can be metaphorically transferred to a type of narrative discourse that evokes states and events indirectly as they are captured in a reflecting device that exists as a material object in the textual actual world. This reflecting device could be a mirror, text, photograph, movie, or television show. (Delany, Sheila 2003, 78; Ryan, Marie-Laurie 1992에서 재인용)

'virtual'을 현실('actual')과 구별하여 실제하

는 미디어 상('textual actual': 거울, 문서, 사진, 영화, TV 프로그램 등)에 구현된 광학적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는 묘사된 담론('narrative discourse')의 형식으로 현식을 은유적으로 전이한 형상을 말한다. 묘사된 담론은 마치 실체('actual')가 '실체하는 미디어 상'에 간혀 간접적으로 그 실체를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다. '실체하는 미디어 상'은 IT 발달로 인터넷 상의 사이버 공간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고 본다.

'virtual'은 이렇듯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다. 'virtual'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경험주의자(empiricist)들에 의해 발전하였다(Deleuze, Gilles & Parnet, Claire 2002: Preface to the English Language Edition). 다양하고 무수한 경험의 미세한 차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낼 수 있는 잠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필요가 대두된 것이다. 비록 현실에서의 경험은 서로 상이할지라도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같다면 그것을 하나의 행위로 규정지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2 Virtual과 Actual의 이분법적 비교

virtual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특히나 actual과의 비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원래 virtual은 철학적 용어였으며 그 어원은 라틴어 'virtus [virtue]'에서 왔다. 철학적으로 진정한 'actual'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실체'는 모호한 'virtual' 이미지로 둘러싸여 있다고 보는 게 맞다(Deleuze, Gilles & Parnet, Claire 2002, 148-152). '실체'를 둘러싼 'virtual'은 시간의 흐름 속에 변하기도 하며 새로이 창조되고 또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실체'는 현시적이지만 '가상'은 시간 축 위에서 연속성을 가지며 지금의 형상은 오늘 뿐 아니라 과거의 궤적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actual과 virtual을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특정 사건이나 사물에 대해 actual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반면, virtual은 주관적이며 기억에 의존한 표현이다. Actual이 실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데에 비해 virtual은 사건이나 사물이 일정 기간에 걸쳐 즉, 통시적 관점에서의 반복적인 일시적 상태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actual에 대한 표현은 고정화되고 박제되어 완결성의 의미를 갖지만 virtual은 유기체처럼 항상 변하는 진행형으로서의 잠재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도서관을 예로 보면, actual은 현재 완결로서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도서관을 그리지만 virtual

<표 1> Virtual과 Actual의 이분법적 비교(Shields, Rob 2003, 28)

Actual		Virtual	
Matter(Object)	사실(객관)	기억(주관)	Memory(Subject)
Present	현재	기간(누적)	Duration(Progression)
Spatial(Synchronic)	실체적(공시적)	일시적(통시적)	Temporal(Diachronic)
Non-Organic	박제	유기체	Living
Inert	비활성	잠재성	Potential
Complete	완결성	진행형	In-process

은 도서관의 긴 역사 속에서 도서관이 보여주고자 하였던 그 무엇을 통시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도 도서관의 모습은 유동적으로 인식되어지고 개인의 주관적 기억에 의존한 잠재성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나 개인이 그리는 도서관의 그림은 도서관이 아닌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도서관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출되어진 사건이나 사물을 자신의 기억속의 도서관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뒤집어 표현한 것이 virtual library가 된다. 뿐만 아니라 IT 기술과 접목하여 부분적으로 표현된 가상적 상황과 기술은 현재의 도서관 서비스와 묶임으로써 새로운 도서관의 모습으로 인지되기도 하는 것이다.

가상적으로 (virtually) 도서관을 표현하면 도서관은 현재의 도서관 모습에 의미가 부과된 공간으로 그려질 것이다. 현재 행위에 대한 연유에 따른 개인의 이상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도서관과 다른 모습을 그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실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도서관에 기대하는 것이며 실제로 도서관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 책을 모으는 것은 책이 지닌 가치를 떠올리며 단순히 책이 있는 곳이 아닌 그 책의 가치가 드러나는 행위가 존재하는 곳이 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아직도 도서관을 기술과 대상으로 정의함으로써 대상 매체의 가치와 형태의 진화를 수용하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책을 가상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의 서비스 실체를 묶어 도서관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3. 도서관의 이해와 사서의 의미

3.1 도서관의 정의

도서관을 정의하기 전에 도서관이 다루는 책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자. 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 왜 책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욕구는 책이 아닌 책 이상의 것이었으나 당시의 기술로 이를 수 있는 최상의 제품이 책이었을 것이다. 왜 인간이 책,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매체를 개발하려 했으며 그 뛰어난 매체는 무엇이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소통을 꿈꾸었으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책이 만들어지고 점차 진화하여 통신, 영상 및 음성 등 그 매체와 방법의 다양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다만 오늘날 책의 의미는 여타 미디어가 갖는 도구적 가치가 아닌 책이 만들어낸 문화와 방식에 의해 그 존재가치를 갖게 된 것이다.

도서관이 생겨난 배경과 의미를 보면 도서관이 생겨날 즈음 책도 발명되어졌으며 도서관의 목적은 누가 보아도 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 의미는 또한 당시의 가장 이상적인 소통매체를 가지고자 함이며 그 필요는 인간의 소통에 대한 갈망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즉, 인간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으로써 도서관이 필요했으며 그 수단으로 책을 선택한 것이다. 만일 그 시대에 책 이상의 매체가 있었으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도서관의 가치와 의미는 오랜 역사 속에 바뀐 것이 아니라 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소통의 장이었으며 시대를 달리하며 그 매체와 방법의 진화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다른 매체를 수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에 몰입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책이 진화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책의 고유문화와 그것을 수용하는 도서관의 진정성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책이 갖는 가치와 향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매체로 탈바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사이 다른 매체는 나름의 채널을 만들어 자신만의 문화와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현대에 책이 대체되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서관은 다양한 매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행위는 이미 다른 채널에서도 진행이 되어 다양한 매체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이라는 유일무이한 존재가치가 다양한 매체와 서비스에 의해 도전받고 있으며 안으로는 사서의 단일한 대처가 그 위기를 자초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해석이라 한다. 비록 같은 결과를 보이더라도 동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면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선 책의 의미는 책을 부정하거나 다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다. 도서관에 대한 역사 또한 그렇다고 본다. 현재의 도서관의 모습이 같다 하더라도 그 도서관을 해석하는데 차이를 보이면 도서관의 의미와 미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치는 않으나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BC 2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메르지역의 한 사원에서 발견된 도서관은 초기의 기록매체인 점토판을 소장하고 있었다(Casson, Lionel 2002). 그곳을 도서관이라 인식한 이유는 기록물과 함께 그것의 목록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한다. 즉, 그곳이 출토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모습과 흡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도서관의 기원으로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 말이 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책의 발생 동기를 돌이켜보면 책은 당시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였으며 그 책을 갖거나 만든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넘는 소통을 행하기 위함이며 그렇기에 통치를 위한 자산일 만큼 가치 있는 발명품인 것이다. 그것을 모은 곳은 단순한 서고의 개념을 넘어 비록 고고학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소통을 꿈꾸던 공간이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도서관은 단순히 책의 더미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목록의 공간이 아닌 소통의 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의 역사는 책의 더미가 아니라 인간 소통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그 당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넘는 소통을 위하여 많은 이야기가 구술로 전달되어지고 노예에 의해 암송되어지던 시기였으며 그것을 상호 향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도서관에 새로이 책이 발명되어지면서 책은 그런 그들의 욕구를 해소시켜줄 최고의 매체이자 도서관의 첨단 자료가 된 것이다. 물론 당시의 습관대로 그 책을 노예가 암송케 하여 다른 곳에서도 즐겼을 것이다.

도서관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의 존재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를 다르게 해석하고자 함이 아니라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만들어가기 위한 도서관의 자구노력이라 본다. 도서관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느냐에 따라 도서관의 미래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도서관을 도서의 수집과 제공으로 인식한다면 과거에도 도서관은 책의

더미가 존재하는 공간이었으며 미래 또한 크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만일 과거 도서관의 역사가 시공을 초월한 소통을 구현하는 곳이라면 현재 역시 도서관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곳이며 사서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주체인 것이다. 그 방식은 정보자원의 조직과 서비스로써 과거 책(정보자원)의 더미와 목록과도 상통할 뿐 아니라 도서관과 사서의 핵심 역할이 되는 것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현대의 도서관은 책이라는 매체에 연연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소통을 위한 어떠한 매체도 수용 가능하며 그것을 조직하고 서비스함으로써 인간의 정보(소통)욕구를 풀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의 과거를 새롭게 정의하고 현재를 투영해 봄으로써 우리는 도서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도서관의 정체성이 책의 더미를 떠나 시공을 초월한 소통의 장이라면 미래 또한 그래야 한다. 미래의 도서관이 어떤 모습을 하든 그 의미는 소통에 있으며 미래의 첨단 소통 방식이 도서관에 도입되리라 본다. 도서관이 기술 의존적이지는 않지만 도서관의 변화를 보면 당시의 최첨단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잘 활용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디지털 도서관은 그런 변화의 표현방법인 것이며 단지 우리가 도서관의 정체성을 책의 더미에서 찾다보니 그 변화가 낯설고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디지털 도서관이 행하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 책이 우리 소통의 중심매체일 때, 도서관은 그 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건축적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디지털도서관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도입을 넘어 그 소통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문화/환경 운동이어야 한다.

3.2 사서 또는 사서 직의 정의

사서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전문직을 말한다. 사서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였으며 전통적으로 책의 더미를 다루는 사람이다. 사서라는 어원을 보면 책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재정의한 도서관의 정의에서처럼 도서관이 이미 책이 아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는 곳으로 정의한 이상, 사서 역시 책을 포함한 소통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국내의 한 학회지에 실린 역사 속 인물의 사서 직에 대한 고찰을 보면 우리가 사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남태우, 이강산다정 2012).

Naudé는 의학을 전공하였지만, 1620년에 지도 교수의 영향으로 Moreau 도서관을 접하게 된 후, 도서관과 인연을 맺어 1653년에 사망할 때까지 사서 직을 수행하였다. (중략)

첫째, de Mesmes 도서관에서는 장서 목록을 만들고,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의 저서를 작성하였다. (중략) 또한 연구그룹을 만들어 종교와 철학에 관한 논의를 함으로써 주제전문사서와 학자사서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중략)

셋째, ... 도서관 설립에 참여하여 도서관 모토를 개방과 보편적 도서관으로 세우고, 모토에 맞는 장서개발과 서비스 정책을 펼쳤다.

저자는 Naudé의 사서 직에 대해 근대사서의 역할을 잘 보여준 사례라 하며 Naudé를 주제전문사서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Naudé의 전공은 비록 의학이었지만 당시에는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제도가 존재하지 않은 시점이기에 Naudé를 주제전문사서로 본다는 것은 저자가 갖는 사서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해 주는 반증이랄 수 있다. 즉, 일반사서는 연구그룹을 조직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지적수준이 안되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그 주제에 대한 안목을 가진 주제전문사서가 필요하다는 비약적 해석일 뿐이다. 그러나 1600년대 도서관의 실상은 개인 장서이거나 회원제 운영의 형태를 취했으며 앞의 논문에서 표현하였듯이 소장 자료의 관리를 특정인에게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특정인은 아무래도 그 장서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저자가 그 많은 사람 중에 Naudé를 사서직의 기원이라 말한 것은 다른 관리인과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초기 사서를 주제전문사서로 인식하는 것은 현재 도서관에는 진정한 사서가 없거나 그 초기 사서가 진정 사서의 기원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Naudé의 행동이 자신의 주제적 배경에서 나왔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스스로 개발한 것이든 Naudé를 사서의 기원으로 여긴다면 Naudé의 행위는 주제전문사서가 아닌 사서의 기본적 행위로 인식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식으로 사서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미 1600년대(1671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Merriam-Webster Dictionary “librarian” 대부분의 용어 사전에 1660-70년으로 표시하고 있음). 당시 사서의 역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회원들의 학

습을 지원하는 업무가 많았다고 한다(wikipedia ‘librarian’ 항목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학자 사서, 주제전문사서라는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처음으로 도서관학교(The School of Library Economy, University of Columbia, 1887년)가 설립된 후의 도서관계는 비로서 사서교육을 받은 사서를 수용하기 시작한다. 이 이전에는 도서관에서 사람을 뽑아 교육하는 방법으로 사서를 양성하였다. 미국의 학제 상 도서관학교는 학문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학과(medical school, law school)와 마찬가지로 전문교육 프로그램(석사과정)으로 개설하게 된다. 초기 도서관학교는 사서 인력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위를 체계화시키고 구조화하여 교과과정을 개설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도서관 문화가 보급되던 시기였으며 늘어나는 장서와 도서관 수에 따른 인력 양성이 급선무일 때라고 본다. 초기 학교 명칭이 Library Economy임을 보아도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우선하였다. 그러므로 도서관학교는 사서의 본질적 이해가 아닌 사서의 현장성과 기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 역시 그것에 맞추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26년 듀이의 기술교육을 수정 보완하여 예술적 정서와 넓은 교양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컬럼비아 대학의 도서관학교는 새로운 교명(School of Library Service)으로 다시 개교하였다(김세익 1970). 이들의 차이는 도서관에 대한 사서의 역할이 도서관운영과 도서관봉사라는 철학적 차이를 설명한다. 이는

앞선 사서의 기원에서 보인 초기사서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전제한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세라에 이르러 현재의 문헌정보학으로 성장하게 된다. 세라의 철학은 과거 물리적 형태로서의 책에 대한 조직 개념에서 가치개념의 문헌(정보)에 대한 구조화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초기 도서관이 출판물이라는 형태에 따른 조직과 운영에 관심을 가졌다면 현대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출판물이 아닌 그 내용물인 콘텐츠와 가치에 대한 연구와 구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세라의 '인간의 기록지식(물리적 형태의 기록물이 아닌 지식)을 사회적 기억으로서 체계 있게 조직하여 제공하는 사회적 기관'(Shera, Jesse H. 1970, 171)으로 도서관을 정의한 것을 보면 더 극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을 5000년 전 도서관에 대입하여도 성립한다. 당시 파피루스와 점토판에 쓰인 당시의 사회적 기억(콘텐츠)을 다룬 곳이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도서관학이란 말은 library science의 직역으로 library를 도서관으로 번역한데서 비롯한다. 결국 우리나라는 도서관학이란 명칭을 문헌정보학으로 바꿀 때, 도서관의 학문적 이해를 건물이 아닌 도서관이 취급하는 정보로서 문헌이란 용어를 선택하였다. 실은 문헌이란 말과 정보란 말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헌에 내재된 가치를 정보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서관학교가 처음 개설될 때, 듀이를 비롯한 설립자들의 생각도 그러하였느냐? 이다. 설립자들은 library science를 library에 대한 연구로 지칭했으며 여기서 library는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 주장과는 다르게 필자의 생각은 도서관이

아닌 장서의 개념이라 본다. 듀이가 십진분류를 개발한 것이 학교 설립의 근원이었다면 더더욱 library는 건물이 아닌 장서이어야 한다. 십진분류 체제가 필요한 것은 도서관(library)이 아닌 집서(library)이기 때문이다. 단지 추측컨대 일본 학자가 문물을 수입하는 과정에 library science에서의 library를 도서관으로 번역하지 않았나 싶다. 문헌정보학 역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의 번역으로 필자는 과거 도서관의 집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학과가 이제는 집서를 넘어 집서가 갖는 가치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정보란 용어 역시 데이터, 정보, 지식의 계층적 표현이 아닌 데이터에 내재된 불확실성 즉, 그 데이터가 갖는 가치를 말하며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가치는 높아지게 되어있다.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가치(정보)를 혼동해 쓰듯이 도서관과 그곳에 놓인 장서를 혼동하면서 빚어진 에피소드라 본다.

3.3 도서관의 본질과 사서의 행위

사서는 도서관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직분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도서관을 선택한 것일까? 사서가 도서관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서관은 변화하는 유기체인가? 아니면 문화재나 유물 같은 하나의 불변의 가치일까? 만일 사서가 자신의 직분을 위해 도서관을 택했다면 도서관의 변화는 새로운 사서를 요구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사서의 변화가 도서관의 변화로 비치는 것일까?

문제는 5000년 전의 사서와 지금의 사서가 어

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해이다. 19세기 사서 교육의 등장과 그 이전의 사서를 비교한다는 것은, 그리고 지금의 사서와 19세기 말의 사서를 비교한다는 것은 도서관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서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이 왜 도서관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면 새로운 가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진정 전리품으로서 점토판과 파피루스를 수집하였다 하여도 그것의 가치를 읽어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서가 아닐까? 즉, 사서는 사람들의 정보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스스로의 발전이나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은 필요했으리라 본다. 사서는 도서관이란 공간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사서에 의해 창조된 공간이 도서관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서의 역할과 기능은 도서관과 별개로 추론해 갈 수 있다.

문헌정보학(구, 도서관학)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도서관은 존재하였으며 그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은 있었다. 다만, 도서관이 공공 서비스화 되면서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도서관 수가 늘면서 자원관리의 필요에 의해 도서관학교가 만들어지고 문헌정보학 교육이 실시된다. 역사적 사실만 놓고 본다면 사서는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 선택되어진 사람들이며 도서관의 운영을 통하여 도서관을 진화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초기 도서관학교의 교육철학과 교육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 본다. 초기 도서관 교육은 실무교육이 중심이었다. 최초 공

공도서관의 설립은 도서관의 수도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지만 장서수와 서비스 인구도 함께 늘어났을 것이며 그에 따른 전문 서비스 인력이 요구되었으리라 본다. 특히, 장서의 조직(분류, 편목)행위는 단순한 관리를 넘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wikipedia에 보면, 정보시대에 있어 사서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 역할로 '기록 관리자(archivist)', '장서구축(collection development)', '전자자원 운용(electronic resources management)', '교육(instruction)', '매체전문가(media specialist)', '현장업무사서(outreach librarian)', '대민봉사(public service)', '연구사서(reference or research librarian)', '시스템 운영(system librarian)', '조직업무(technical service)', 그리고 '청소년상담(young adults librarian)'을 들고 있다. 거의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자원, 기술, 조직 및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포함된다. 사서는 이 모든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하며 나아가 모(parent) 기관과 커뮤니티와의 관계 속에서 도서관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갖는다. 이 모든 업무는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상호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서의 업무분장으로 이해된다.

빌 게이츠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 사업의 일환으로 'The Global Libraries Initiative'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출발은 사서들을 통한 도서관의 해석이었다. 2013년 4월에 발표된 설문 결과의 도서관의 요구, 기회 그리고 역할에 대한 사서들의 반응이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2013).

- What is the role of the future library when information will be primarily accessible via a device? (정보가 기본적으로 각종 IT 기기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면 미래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 “Navigating and curating information” was most frequently mentioned; and, (정보의 탐색과 구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
 - “Trained librarians” was cited as most important. (그러기 위해 잘 훈련된 사서가 필요함)
- What are key attributes of future library? (미래 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 “Trained librarians” and “Visionary, effective leadership” were ranked ordered as two most important attributes. (잘 훈련된 사서와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추진력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뽑음)
- How might support and funding from the Global Libraries Initiative most effectively help libraries develop these attributes? (도서관이 이런 가치를 키워가기 위해 the Global Libraries Initiative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among libraries to test innovative new services and share results with field” and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for library workers” were both most frequently mentioned and rank ordered highest in response to this question.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게끔 도서관의 협력을 지원해 주고, 사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

련의 필요성을 강조)

이 결과를 보면 미래 도서관의 희망은 사서의 역량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서관을 살펴보면 그 정의와 현실에서도 이미 사서에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전문가로서의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왜 많은 사서가 미래 도서관의 가치를 잘 훈련된 사서로 보는 것일까? 또한 잘 훈련된 사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도서관 영역에 전문 사서가 배치된 것은 도서관학교가 개설하고부터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많은 도서관학교가 생겨났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 초기의 기술 중심의 교육(자료의 조직)에서 가치 중심의 교육(정보서비스)으로 큰 틀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많은 도서관학교는 정보서비스가 기존의 자원 중심의 reference work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도서관의 소장 자료가 크게 바뀌지 않은 속에서 information service와 reference work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reference work는 reference 도구의 활용을 전제하지만 information service는 정보의 가공과 재구성이 그 핵심이랄 수 있다. 과거 reference 도구의 가치는 도서관의 가치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의 핵심적 영역이었다. 주로 사전(dictionary, encyclopedia), 연감, 요람, 통계 등, 필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을 이용하기 위한 문헌으로 제작비도 고가이지만 개인이 구축하기엔 쉽지 않은 도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은 이런 자원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사서들의 reference 도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와 이용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서비스를 모두 reference work이라 불렀다. 이토

록 사서들은 reference 도구의 가치를 알기에 출판매체를 통하여 이런 자원이 생산되도록 중용하였으며 출판사는 도서관을 고객으로 고가의 reference 도구를 개발하게 된다. 이용자들은 사서의 자원 조직 행위와 reference 도구, 그리고 사서의 도움이 있기에 도서관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달은 reference 도구의 영역을 도서관에서 웹으로 옮겨놓고 말았다. 게다가 많은 정보자원이 디지털화되는 과정에 문자로서의 출판은 멀티미디어의 출현과 함께 reference 도구 자신도 디지털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이런 현상은 도서관의 기반을 기초부터 흔들기에 충분하였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기반은 인쇄매체의 수집과 조직, reference 도구를 통한 자원의 접근, 그리고 그것의 향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인쇄매체의 소재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의 디지털화를 통한 접근의 편리함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사서의 주 무기인 reference 도구에 대한 접근도 도서관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가능케 하였다. 즉, 극단적으로는 도서관이 없어도 이용자는 필요한 자원을 입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도서관에서 자원의 조직과 reference 도구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꿈꾼다.

사서의 이런 꿈이 잘못됨을 말하고자 함은 아니다. 왜 이런 꿈이 도서관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와서도 사서의 도움 없이는 자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인터넷에서는 저절로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도서관 내에서의 사서의 역할은 인터넷에서도 유효하다. 그런데 사서는 인터넷 자원을 도서관 자원으로 바꾸면 문제

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날의 문제는 이용자가 인터넷 자원을 도서관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이란 경로를 통하지 않고, 사서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그런데 사서는 그런 이용자에게 사서의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주려는 커녕 도서관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한다.

현재 사서는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이고 왜 도서관이 필요한지에 대한 원론적 답이 없는 한 그 변화는 시류적이고 기계적일 수 있다. 미래도서관에서 사서 스스로가 요구한 것도 잘 훈련된 사서의 필요성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한 도서관의 역할은 자원의 구축과 조직이 아닌 정보의 탐색과 구성(navigating & curating)을 꼽았다. navigating은 이해가 가지만 curating은 무엇일까? 몇 년 전 *New York Times*에 실린 기사 하나를 보면,

THE Tipping Point, a store in Houston that calls itself a sneaker lifestyle shop, does not just sell a collection of differently colored rubber soles, along with books, music and apparel. No, its Web site declares, the store "curates" its merchandise.

미국 휴스톤의 다양한 일상 소품을 파는 한 가게 (THE Tipping Point)에선 그냥 이리저러한 소품들을 그대로 팔지는 않는다고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소개된 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상품을 'curate'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있다.

[중략]

The word "curate," lofty and once rarely

spoken outside exhibition corridors or British parishes, has become a fashionable code word among the aesthetically minded, who seem to paste it onto any activity that involves culling and selecting.

영국목사란 뜻, 전시회랑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고급 단어 “curate”란 용어가 최근 들어 미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행하는 용어로 부상하였다. 그들은 무언가를 뽑아내고 고르는 행위에 이 용어를 쓰곤 한다.

[중략]

The term “curator” was not intended to be hyperbole, said Tom Kalenderian, the men’s fashion director for Barneys. Consulting closely with the photographer, a former fashion retailer, the store stocked just the right items to help shoppers achieve the elegant, eclectic look.

“‘curate’란 용어가 과장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류가게의 한 지배인은 말하고 있다. 사진작가, 전직 의류도매상들의 자문을 통해 고객들의 상품 선택을 도와, 그들이 우아하고 적절한 상품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curate” in “On the Tip of Creative Tongues” from The New York Times, October 2, 2009)

여기에서 보면 ‘curate’란 용어는 미술관을 벗어났으나 미술관에서의 curator의 기능 같은 것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즉, 작품을 고르고 기획하여 전시를 수행할 뿐 아니라 고객의 취향을 읽어 적절한 작품을 연결해 주는 기획력과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요구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술관 밖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

과 도움을 통한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 같다.

사서들이 미래 도서관에 요구하는 것은 지식의 보고가 아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대상으로 적절한 지식을 찾아주고 또 미리 구성하여 그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독자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기획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거처럼 기존의 도구에 의존한 서비스가 아닌 스스로 도구를 개발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읽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구성할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미래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의 역량이다. reference work를 넘어 진정한 information service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한 색인의 기능을 넘어 고객의 취향과 요구를 읽을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과 함께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거나 재구성하는 기획력이 요구된다. 도서관학교가 생긴 이후의 정보환경은 기왕의 (물리적) 구성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과 다양성이 형성되었다. 개인용 컴퓨터로 대변할 수 있는 지식사회는 다양한 요구의 분출과 서로 다름을 추구하면서 과거 물리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된 지식자원이 분책의 과정을 거치며 다양한 지식자원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일례를 들어보자. 여기 책이 한 권 있다. 그 책은 목차와 본문 그리고 말미의 색인으로 구성된 책이라 하자. 목차는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로 배열되었는지를 요약하여 설명하는 구실을 하며 권말 색인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용자가 특정한 정보를 요구할 때 사서는 그 책을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며 그럴 때 유용한 도구로 다양한 reference 도구를 활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책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독자들에게도 같은 책을 권할 수 있다. 결국, 사서는 reference 도구(목록 포함)를 전제로 다양한 도서, 물론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물리적 단위로서의 도서를 비치함으로써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만일 필요로 하는 정보가 여러 책에 나누어 있을 경우엔 여러 책을 추천하기도 한다. 그러나 IT 기술의 발전은 물리적 형태로서의 한권의 책이 색인 개념으로 조각나기 시작하였으며 한권의 책을 제작하는 경비와 시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줄어든 다양한 정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가지 정보를 일련의 논리 구조 위에 구성한 형태가 책이라면 IT 기술의 발전은 이런 책의 개념이 아닌 정보 자체를 제작하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책이라는 컨테이너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낱알이 분해되어 소위 과거 reference 도구의 메커니즘을 갖는 환경 속에 재배열되기 시작하였다. reference 도구의 메커니즘이란 곧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으로서 도서관의 꽃이었지만 새로운 기술은 이것을 web과 검색엔진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들에게 돌려주었다.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고 자신이 생산한 정보는 작은 단위로서 다른 고객에게 전달/이용되어지는 메커니즘은 도서관이라는 거대한 창고와 그 창고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reference 도구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말았다. 비록 도서관의 자원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검색 도구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reference 도구가 아닌 또 다른 고객이 만들어 놓은 다른 정보 자원인 것이다. 즉, 모든 정보는 정보 그 자체와 그것을 대변하는 메타데이터로 구성되

어 졌으며 그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상호 소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가 책에서 얻는 가치는 단순한 하나의 정보를 넘어 그 정보가 구성되어진 책 내용 전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의 정보환경을 보면 한권의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보다는 낱알의 정보에 대한 접근에 만족하고 있으며 그것을 구성해 내는 능력은 많이 부족한 듯하다. 앞의 'curate'를 설명하는 과정에 인용된 글처럼 사람들은 개개의 물건을 구입하여 그것을 스스로 구성하려 하기 보다는 가게에서 기획한 조합과 구성을 전제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게 주인은 낱알의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획하고 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행위, 'curating'을 하는 것이다.

과거엔 사서가 잘 구비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만 하여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지만 지금 고객의 요구는 한권의 책이 아닌 책 속에 녹아있는 지식조각의 재구성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원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가치는 대량생산이 아닌 서로 다름을 추구하는 21세기 지식사회의 현상이며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사서가 재건할 수 있다면 도서관은 살아남을 것이다.

4.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재해석

4.1 one-person-library의 개념

일반적으로 one-person-library를 'one-person library'와 많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one-

person library'란 말 그대로 일인 사서가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one-person-library'란 개념 역시 그런 맥락에서 시작되었지만, one-person-library란 우리가 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 이용자가 만난 한 명의 사서, 그가 곧 도서관이라는 도서관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한다(정준민 1994). 오래된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보면 도서관은 공간, 장서 그리고 사서로 구성된 유기체라고 되어있다. 유기체(organic body)라 함은 자극에 반응하고, 성장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 가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한다. 그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면 사서는 이용자의 요구와 그 요구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장서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실시간 요구에 부응하려 하고 있다. 즉, 사서와 이용자의 교감을 통하여 장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사서가 분업적 형태의 업무에 몰입되어 정보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이 아닌 행정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서관은 크게 수서, 정리, 그리고 열람부서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부서는 정보 흐름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수서업무의 하나로 진행되어지고 수서업무를 통해 구입된 지식자원은 정리부서에서의 조직과 배열을 거쳐 일반 열람실에서 이용자를 만나게 된다. 물론 열람업무에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reference work이 수행되는 식으로 사서의 고유 기능으로 조직과 reference를 들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담당하는 사서와 그것을 조직하고 처리하는 사서, 궁극에 이용자가 그 자원을 이용하려 했을 때, 그 상황을 담당하는 사서는 서로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 보니 어떤 사서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정확

히 인지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만일 사서의 업무분장이 수서, 정리, 열람이 아닌 information service로 되어 있다면 어느 사서든 수서와 정리 그리고 그것을 서비스할 수 있는 열람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요구는 담당사서에 의해 구입, 정리되어 이용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서와 정리에 따른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기능이 전산화됨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과거의 사서가 잘못된 조직형태로 도서관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IT기술의 발달은 지식자원의 형태와 유통구조를 바꾸기도 하였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one-person-library의 발상은 20세기 산업구조와도 무관하지 않다. 도서관과 사서가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동안 정보 환경과 기술도 빠르게 발달하였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노동생산성은 초기 도서관교육을 업무의 효율화로 인식시켰으며 도서관을 전문직에 의한 서비스 공간의 기능적 생산성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그 변화는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그 정점에 달하게 된다. 특히, 출판문화의 성장은 도서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도서관의 전문성을 해치는 모순도 저질렀다. 사서의 기능을 전문직으로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업무의 기능적 생산성을 적용하여 수서, 정리, 열람 등의 업무분장을 사서에게 요구하였으며 일부 사서와 비사서의 애매한 역할분담 속에 사서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는 20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계기로 사서의 능동적 수용이 아닌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미필적으로 사서 업무를 대체하였으며 급기야 사서는 명분만 살아있는

전문직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출판문화의 성장은 도서관 업무의 핵심이자 사서의 전문성이랄 수 있는 정보 서비스 영역에서의 reference 도구 개발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고 말았다. 지역성이 강한 도서관 서비스에서 야기되는 정보 서비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reference 도구를 출판계에서 규모의 논리로 일반화시킴으로 reference 도구의 품질은 물론 가치도 높였다. 그러나 결과는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사서의 전문성에 큰 흠집을 만든 것이다. 결국 사서에 의해 요구되어지고 출판에 의해 생산되어진 reference 도구는 사서를 소비자로 전락시켰으며 지속적이고 진화된 도구의 생산은 더 이상 사서의 몫이 아니었다.

one-person-library는 이런 도서관의 현실 속에서 사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도서관의 경영기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사서들의 부적응과 현장에서 직면하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일부 대학도서관에서 학과전문 사서라는 이름으로 실험되고 있을 뿐이다. one-person-library라는 경영기법이 확산되지 못한 이면에는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에 대한 기대와 불안함이 들어있다. 주제전문사서란 사서가 특정 주제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용자들의 이용요구에 부응하는 사서를 말한다. 명분은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이 대학원 과정에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제각기 서로 다른 학부 전공을 가지며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익혀 사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논리이다. 주제전문사서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주제전문사서를 일반화시켜 사서들의 본분인 정보서비스의 개념

을 왜곡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이기보다는 차라리 주제전담사서(subject librarian)로 부르는 게 맞다.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는 사서이기보다는 연구원의 개념이 강하다. 어떤 연구팀이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연구원 중의 한 명을 자신들의 임시 사서로 설정하여 자신들이 연구에 필요한 고급정보를 단시간 내에 확보하려는 시도의 발상인 것이다. 만일 사서가 자신의 특정 학문의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사서 업무를 수행하려 한다면 그 지식배경은 인문학/자연과학의 차이가 아닌 세분화 전문화된 모든 학문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이용자들의 관심 영역 또한 세분화된 주제배경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만큼 숫자의 사서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제전문이 아닌 주제전담사서(subject librarian)가 맞는 말이며 그것은 기왕의 정보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영역을 전공한 사서에게 폭넓게 그 분야를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서의 업무와 기능은 이용자의 이용요구를 예측하고 자원을 조직하는 행위이며 그것은 현장에서의 실시간 업무가 아닌 사서의 전문 영역인 정보 분석을 통한 자원의 확보 또는 자원 생산의 의뢰가 전제되는 것이다. 비록 도서관학 교가 설립된 초기의 도서관 환경은 16세기처럼 지적 수준이 높은 사서들이 존재하였겠지만 노동생산성에 준거한 사서 교육은 주제전담사서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킬 만큼 불가항력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서가 주제전담이든 일반사서이든 사서는 정보전문가로서 이용자의 이용행태, 그들의 자원 생산 방법 및 특정 영역의 성장과 변화 추이를 읽을 수 있는 계량학적 도

구가 요구되며 이런 분석은 모든 학문 분야에 적용되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특성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4.2 one-person-library 개념의 확장

1990년대 초 경영기법의 하나로 제안된 one-person-library는 조어(造語) 상의 문제로 의미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였다. 대부분 one-person-library를 1인 사서가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one-person-library는 용어를 그곳에서 따왔지만 개념은 작은 도서관의 운영이 아닌 사서의 윤리강령인 것이다. 비록 현재의 도서관이 20세기 노동생산성에 근거한 조직 체계를 수용한다 하여도 사서는 전문직으로서 스스로 도서관 전체를 운영하고 이해하는 안목과 이용자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것이 one-person-library의 시작이다.

우리가 의사나 변호사를 얘기할 때 병원과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이해를 갖는다. 비록 그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거나 로펌(law firm)에 소속되어 있다 하여도 말이다. 그런데 사서는 도서관이 없으면 그 존재도 부정된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19세기 말 사서교육이 만들어낸 인식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서교육이 있기 이전부터 사서가 존재하였으며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리고 알고 있는 공간에서 사서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억지일 수 있겠지만 사서라는 존재는 도서관과 무관하게 존재한 개념이며 그런 사서가 도서관을 만남으로 그의 가치가 들어났다고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알려진 16세기 사서의 기

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들을 교육을 통해 고용한 것이 아니라 그런 소질을 가진 자를 자신의 도서관에 고용하여 운영하였던 것이다. 즉, 현대의 사서교육이 있기 이전에는 전문적 사서교육이 아닌 도서관 개별단위의 교육이었으며 이런 교육은 장서와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었으리라 본다. 그런 인물 중의 하나인 듀이가 자신을 고용한 도서관에서 스스로 분류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원초적사서로서의 듀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발명한 분류시스템, 이것이 곧 사서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라 본다. 우리가 가끔 사서의 중요성을 얘기하라 하면 reference work을 내세운다. 정말 사서에겐 조직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이라 본다. 그럼에도 현재는 그 reference work 때문에 사서임을 부정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제전문사서가 주는 사서의 자괴감이기도 하다. 특정 주제를 다른 사서보다 많이 안다는 것은 그 영역의 이용자를 만날 때 불안감은 덜할 수 있지만 서비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서는 자신의 지식에 의존해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과 그 자원의 조직, 그리고 reference 도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이런 서비스는 이용자를 맞대면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가 있기 전에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례를 들어보자. 어떤 빌딩의 로비에 안내 데스크가 있고 그곳엔 안내하는 직원이 있다. 그 직원의 업무는 그 빌딩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실시간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안내원이 하루 종일 거의 유사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일까? 어떤 질문은 안내원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내용은 안내원은 잘 알고 있으나 그 건물을 출입하는 이용자 개개인에게는 똑같은 관심의 대상이고 잘 알지 못한다면 안내원은 계속 똑같은 질문의 답을 개개 이용자에게 일러주는 것이 옳을까?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안내원은 안내 전에 그 건물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성향과 요구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곤 필요에 따라 다양한 사인보드를 개발하거나 게시판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요구를 안내데스크에 직접 문의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만일 알지 못하는 질문이 들어왔을 경우는, 최대한 친절히 그 이용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안내데스크를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곧 안내데스크가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요구 이전에 그 빌딩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요구를 파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사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현장에서 이용자들의 질의에 답하기보다는 그들의 질의를 미리 분석하여 안내판이나 다양한 사인보드, 목록 등을 구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며,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스스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서가 잘 알지 못하는 특정한 영역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서와 이용자가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하여 다음에 있을 유사한 질문에 대비하면 되

는 것이다. 그것이 사서의 본질이며 사서가 가져야 할 가치인 것이다.

one-person-library는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으로 사서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경영기법이었다. 그러나 one-person-library는 경영기법을 넘어 사서의 본질과 사서의 가치로 해석되어지면서 도서관의 역사와 정의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문헌정보학의 철학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즉, 사서의 본질과 가치를 information service에 두고 정보서비스를 잘 수행하기 위하여 도서관이라는 장서 공간을 자신들의 활동무대로 선택한 것이다. 이는 장서가나 기관은 도서관을 만들고 사서를 초빙하여 자신의 고객에게 최고의 정보서비스를 발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궁극엔 사서는 그 도서관의 제 1 고객의 위치에서 도서관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며 장서를 관리 (building collection)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reference 도구를 개발하고 이용자 요구를 읽어 자원을 탐색하고(navigating), 조직된 자원을 새롭게 구성(curating) 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구를 미리 대비하게 되는 것이다.

4.3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재해석

전통적인 도서관과 사서의 정의를 살펴보면, 도서관은 인류가 생산한 위대한 기록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였으며 사서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식자원을 조직하고 다양한 reference 도구를 제공하였다. 오늘날 IT 기술은 도서관을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보 요

구와 표출의 방식을 바꾸어버렸다. 이 역시 도서관을 역사적으로 고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지식자원의 표현과 소통은 물리적 형태의 제약을 받았으나 인간의 욕구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을 획득하고 또 소통하기를 희망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의 기록매체는 지속적인 진화와 발전을 이룬 것이다. IT 기술은 기록매체의 진화와 새로운 가치추구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도서관은 늘 그렇듯이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매체, 새로운 소통을 제공할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사서들이 미래 도서관에 요구한 잘 훈련된 사서의 모습이 정보의 탐색(navigation)과 기획/구성(curation)인 것을 보면 이미 도서관 자원은 검색의 대상이 아닌 이용자 편익의 가치인 것이다.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기대하는 것은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이고 개인 서재의 역할이다. 무엇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자원(knowledge resources & facilities)을 이용하기 위해 가는 곳이다. 사서는 이용자들이 찾아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게 도와주는 역할이 아닌 이용자와 더불어 같이 문제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며 함께 공유하는 생산의 장인 것이다.

이것이 미래 도서관이고 미래 사서라면 과거의 도서관과 지금의 사서와는 무엇이 다를까? 여기에 'virtual'의 개념이 등장한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진화한다고 하여 과거의 나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과거 도서관이 지식의 창고였다고 하지만 그 지식자원이 어떻게 수집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면 지금도, 미래도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끔 우리는 좋은 도서관으로 장서가 많은 도서관을 든다. 그러나 그런 도서관 역시 매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지식자원을 수집한 결과 그런 장서를 갖게 된 것이 무의미하게 무조건 도서를 구입한 것은 아니다. 사서들 또한 조직과 운영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사서들이 운영한 reference 도구를 보면 사서의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다. reference 도구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즉, 일반 독자는 구입하려 하여도 구입하기 어려운 도서이며 그 가치 또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가이드로서의 역할이기에 개인이 소장할 만한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런데 왜 이런 도서가 출판되어지고 도서관은 또 그것을 갖게 되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 사서의 요구에 의한 출판사들의 영리 행위인 것이다. 사서는 이용자의 이용 편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reference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출판사는 그것을 생산하여 도서관에 비치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보문화를 보면 지식자원의 생산과 운영, 그리고 소비는 지식자원의 물리적 특성 상, 분업화 양상을 보였으며 이런 현상은 산업사회에서는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자신의 특성을 살려 그것을 키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분업화 하여 상생을 꾀한 것이다. 도서관과 출판 역시, 생산과 소비의 분업적 차원에서 업무가 분장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그 물리적 분업은 지식자원의 유통과 생산 구조가 디지털이라는 한 채널을 갖게 되면서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유통의 주체가 구별되지 않은 모두가 생산자이고 소비자가 되는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과거 도서관이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며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 움직였다면 앞으로는 그 관계가 모호한 속에 스스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중개자(moderator,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모호한 속에서는 생산, 소비 그 어느 것으로도 가치를 드러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도서관이 시간과 공간을 넘는 소통의 장이라면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생산과 소비의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으며 사서는 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와 공급의 장을 열어주면 되는 것이다. 5000년 전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도서관은 소통의 공간이며 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서이다. 도서관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공간(actual/virtual)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공간이 어디든 그 공간을 설계하며 사서는 소통을 원하는 주체와 객체가 만날 수 있도록 상황을 연출하는 사람이다. 21세기 사서는 이미 그 자체가 도서관(collectio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잘 구축된 도서관(space)을 의지하여 자신이 필요한 정보의 navigating(탐색)과 curating(구성)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도서관을 예로 들어보자. 전자도서관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도서관의 소장 자원이 디지털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도서관의 개념은 5000년 전이나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수장고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첫 장에서 도서관과 병원 그리고 법원을 비교했을 때 다른 기관은 기능과 가치로 평가한 반면 도서관은 단순히 지식자원의 창고로서의 의미만 부여되었다. 이는 문헌정보학에서나 일반인의 인식 속에 도서관이란 공간은 단순한 창고로서의 의미일 뿐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문화는 전적으로 사서에 의한 창조 작업인 것이다. 우리가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가상적으로(virtually) 정의한다면 소장 자원의 실체와 공간의 유무가 아닌 집서(collection)로서의 가치를 가짐을 알 수 있다. 과거든, 현재든 또 미래를 보더라도 도서관은 유무형의 집합이며 그 집합의 유용성은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서에 의해 정의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서는 현실 또는 가상의 공간에서 지식자원(collection)을 어떻게 유용하게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용자에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인 것이다. 초기의 도서관은 공간에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가치를 표현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원의 조직과 reference 도구의 생산 그리고 나아가 물리적 자원이 아닌 그것에 내재된 정보로서의 가치를 표현하고 소통시킬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 문헌정보의 해석 또한 물리적 형태로서의 문헌과 그것의 내재된 가치로서의 정보로 인식한다면 도서관학이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도서관이 아닌 사서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초기 도서관학에서 요구한 것은 사서의 조직력이었으며 점진적인 IT 기술의 발전은 물리적 형태의 문헌에 대한 미시적 이해와 그것의 가치를 표현하고 조직하는 실험적 행위로 이어진다. 이 무렵 도서관학은 문헌정보학으로 진화하였다.

5. 결 언

문헌정보학은 열린 지식에 대한 인간의 소통을 다루는 학문이다. 지식경영의 패러다임은 기업의 자산 가치로 노동자 개개인의 암묵지를 평가한다. 그러나 그것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

면 스스로 지적 가치를 생산하여 기업으로부터 평가받기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아니 사서의 역할은 개개인의 암묵지를 사회 공동체의 자산으로 성장시키는 촉매로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무엇을 정의하거나 인식하는 과정에 그것의 현상적 모습이 우선한다.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된 가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할 뿐 아니라 그것의 기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런 기대치와 가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만 그것이 갖는 통시적 의미와 본질적 해석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 도서관을 사서의 일터로 한정 짓거나 사서의 업무를 도서관이 소장한 자원에 대한 수동적 서비스로 정의한다면 비록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지역사회 문화공간으로 개방을 하더라도 그것은 사서가 배제된 공간 활용의 의미만 존재할 뿐, 디지털 세상에서 사서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아무리 좋은 지식자원을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사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보물찾기의 대상일 뿐이다.

우리는 매번 사서 없는 도서관의 불행을 얘기한다. 도서관에는 사서가 있어야 한다는, 도서관에 대한 맹목적인 외경심을 갖는다. 그러나 도서관 외의 공간에서 사서를 필요로 하는 많은 분야가 있음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 도서관 없이도 사서가 활동할 수 없음을 인지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 사서는 도서관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다. 사서는 필요에 의해 장서로서의 도서관 공간을 선택한 것일 뿐, 사서의 영역엔 제한이 없다. 일반 기업과 기관, 나아가 개인 모두에게 요구되어지는 정보서비

스를 전문으로 처리할 줄 아는 사람, 그가 곧 사서인 것이다. 사서는 그 자체로 도서관이며 세상의 모든 자원이 다 서비스 대상이고 사서가 가공해야 할 미래 가치인 것이다. 사람들이 찾는 도서관은 창고로서의 도서관이 아닌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서의 도서관, 즉 사서가 만든 세상인 것이다.

본고는 사서의 가치와 기능을 재해석함으로써 도서관 중심의 패러다임을 사서중심으로 옮기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은 진정 공간으로서의 기능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우리가 도서관이라 부르는 곳은 그 공간에 표출된 장서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우리가 정보를 데이터가 지닌 불확실성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정보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라 본다. 이것은 정보라는 무형의 가치가 데이터라는 유형의 표현에 덧 입혀져 소위 말하는 virtual 정보로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 시간의 흐름과 인식의 변화 속에서 virtual은 떨어져 나가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그냥 정보라 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장서: 물리적 가치)은 그것의 물리적 형태로 말미암아 공간을 점유하게 되었으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공간을 도서관이라 명명하게 되었다고 본다.

one-person-library 역시 사서에게 부과된 virtual 도서관의 한 형태이다. 우리가 도서관의 실체를 장서로 인식하고 그 장서는 의미 있는 지식자원의 집합체로서 유형, 무형의 모습을 가질 것이며 궁극엔 그것의 표현은 사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서는 유, 무형의 자원을 탐색(navigating)하여 장서를 구축하

고 그것을 재구성(curating)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장서는 기성의 출판 과정을 거친 지식자원(knowledge resources)을 포함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생산해 내는 지식자원(knowledgeable

resources)이 된다. 5000년 전 도서관의 자원은 수집 그 자체로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면 미래의 자원은 탐색(navigating)하고 재구성(curating)을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세익. 1970. 세계적 추세에서 본 한국도서관학의 일 측면에 대한 논고. 『문헌정보학회지』, 1: 103-132.
- [2] 남태우, 이강산다정. 2012. Naudé의 사서 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117-136.
- [3] 이정민. 2008. 디지털 환경에서 사서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1): 157-174.
- [4] 정준민. 1994. ONE-PERSON-LIBRARY의 개념정립. 『문헌정보학보(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4: 75-95.
- [5] Bensman, Stephen J. 2005. "Urquhart and Probability: The Transition From Librarianship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ASIST*, 56: 189-214.
- [6]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2013. *Global Libraries Program - Summary of Stakeholder Engagement Survey Results*. 20 slides.
- [7] Casson, Lionel. 2002. *Libraries in the Ancient Worl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8] Cragin, Melissa H. 2004. "Foster Mohrhardt: Connecting the Traditional World of Libraries and the Emerging World of Information Service." *Library Trends*, 52: 833-852.
- [9] Deleuze, Gilles, Parnet, Claire(translated by Hugh Tomlinson & Barbara Habberjam). 2002. *Dialogues II, 2nd ed.*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 [10] Kibbee, Jo. 2006. "Librarians without Borders? Virtual Reference Service to Unaffiliated User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2: 468-473.
- [11] Kruger, Hilda. 2005. "I, Librarian."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24: 123-129.
- [12] Orick, Jan T. 2000. "The Virtual Library: Changing Roles and Ethical Challenges for Librarians." *Intl. Inform. & Libr. Rev.*, 32: 313-324.
- [13] Robertson, Scott. 1999. "A virtual library for building community and sharing knowledge." *Int. J. Human-Computer Studies*, 51: 663-685.

- [14] Ryan, Marie-Laurie. 1992. *Possible World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rrative Theory*, 2nd ed.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28. Quoted in Sheila Delany (ed.). *Chaucer and the Jews - Sources, Contexts, Meanings* (London, England: Routledge, 2003).
- [15] Shera, Jesse Hauk. 1970. *Sociological Foundations of Librarianship*. Bombay, India: Asia Publishing House.: p.171. 재인용: 남태우. 2003. 셰라(Shera)의 도서관 인식론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 210.
- [16] Shields, Rob. 2003. *The virtual*. London, England: Routledge.
- [17] Styhre, Alexander. 2003. "Knowledge as a Virtual Asset: Bergson's Notion of Virtuality and Organizational Knowledge." *Culture and Organization*, 9: 15-26.
- <<http://en.wikipedia.org/wiki/Library>>.
 <<http://en.wikipedia.org/wiki/Book>>.
 <<http://en.wikipedia.org/wiki/Court>>.
 <<http://en.wikipedia.org/wiki/Hospital>>.
 <<http://en.wikipedia.org/wiki/Institution>>.
 <<http://en.wikipedia.org/wiki/Librarian>>.
 <[http://en.wikipedia.org/wiki/Virtual_\(philosophy\)](http://en.wikipedia.org/wiki/Virtual_(philosophy))>.
 Merriam-Webster Dictionary : "librarian"
 Oxford English Dictionary : "virtual"
The New York Times(in "On the Tip of Creative Tongues," October 2, 2009): "curat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e-ik. 1970. "Study on Library Science of Korea in Global Tren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 103-132.
- [2] Nam, Tae-Woo, & Lee, Kang-San-Dah-Jeong. 2012. "The Study on Naudé's Librarianshi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117-136.
- [3] Lee, Kyung-Min. 2008. "A Study of Librarian's Identity in Digital Environment."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1): 157-174.
- [4] Chung, Jun Min. 1994. "Introductory Approach to ONE-PERSON-LIBRARY." *Information & Library Science Journal* (Kwang Ju University), 4: 75-95.